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0. 20.(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0월 20일(화)부터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	담당자	이상호 사무관(044-300-7441)
			김은엽 주무관(044-300-7442)

세종시의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충청북도의의회 방문...행정수도 완성 협력 강화

-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확산 및 충청권 상생발전 위한 의회 간 협력 논의 -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20일 충청북도의의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차원의 공감대 확산과 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충청권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박란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 부위원장, 김동호, 김명숙, 김학서, 박범중, 박병남, 정연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장 등 관계 의원들과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수도 특별법」

이 조속히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세종과 청주는 각각 다른 행정구역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세종이 발전해야 충북도 발전하고 충북이 발전해야 세종도 발전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행정수도 완성이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형 부위원장은 “이번 충청권 의회 방문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인접 지역에서 나아가 전국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인 만큼,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상정과 더불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간 연계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

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번 충청북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22일 공주시의회, 30일 충청광역연합의회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충청권 의회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